

2

실패한 구치부 복합레진 인레이의 재수복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 교실
박연식*, 황인남, 오원만

I. 서론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은 수복용 복합레진의 물성의 향상, 전문적인 수복 기구들의 개발 및 간접 수복법의 소개로 이전의 아말감이나 간접 금속 수복법으로 수복되었던 많은 예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수복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수복법의 경우 심미성의 증진, 잔존 치질의 보강 및 치질 삭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화 수축, 수복용 복합레진의 물성, 2급 와동에서의 형태 부여의 어려움 및 술후 민감증의 이유로 상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간접 수복법은 부가 중합에 의한 물성의 증진, 적절한 형태 부여, 그리고 레진 시멘트에 국한된 중합 수축으로 인한 민감성의 감소 등의 장점으로 인레이 수복 및 모든 교두를 포함하는 온레이 수복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소개되고 있는 간접 수복 전용 복합레진들은 구치부 Crown & Bridge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복합레진 간접 수복법도 기존의 금 인레이나 온레이에서 요구하는 와동의 형태에 비해 유지 및 편의 형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저항 형태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 인레이에서 교두의 피개가 요구되는 협설 폭경과 근원심 측의 남아있는 marginal ridge의 양의 평가는(비록 복합레진 인레이가 레진 시멘트에 의해 치질에 부착되어 잔존 치질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증례들은 과거 1급 복합레진 인레이를 시행했던 증례들 중 부적절한 잔존 치질의 평가로 인해 잔존 치질의 파절이 발생해 재치료한 증례들이다.

II. 임상증례

(1) 증례 1.

나이/성별 : 38세/F

주소 : 상악 좌측 제2 대구치의 레진 인레이 수복물 주위 치질의 파절

과거 치과력 : 1996년 1급 복합레진 인레이 (Charisma, Kulzer, Germany)

치료 : 2002년 복합레진 온레이 (Art-Glass, Kulzer, Germany)

(2) 증례 2

나이/성별 : 31세/F

주소 : 하악 우측 제1 대구치의 레진 인레이 원심 치질의 파절

과거 치과력 : 1997년 1급 복합레진 인레이 (Charisma, Kulzer, Germany)

치 료 : 2002년 복합레진 온레이 (Art-Glass, Kulzer, Germany)

Ⅲ. 결 론

복합레진 인레이가 치질에 부착되어 잔존치질을 보강할 수 있다하더라도 협설 폭경과 근원심축의 남아있는 치질의 양의 평가를 통해서 교두의 피개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